『대순사상논총』 제58집 (2026), pp.131~182
https://doi.org/10.25050/jdaos.2026.58.0.131

반암마을 두락암과 객망리 일대의 천문·지리 상응 담론 연구

- 북두칠성 표상의 공간적 구성을 중심으로 -

신 영 대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고창 반암 권역의 두락암과 증산 강일순 탄생지인 객망리·시루산 일대가 북두칠성 표상, 풍수 물형, 지명, 지역 전승 및 종교적 기억을 매개로 하나의 상징적 공간 관계망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두락암과 객망리를 천문과 지리가 상응하는 장소로 해석할 때, 객망리는 강일순이라는 종교적 인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공간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본고는 현지답사, 지도·위성영상 분석, 전통 천문·풍수 문헌과 대순진리회 자료의 검토를 병행하였다. 또한 형기론과 물형론을 바탕으로 각 권역의 산세·수세·지맥에 부여된 풍수적 해석을 고찰하고, 지명·지역 전승·종교적 기억이 자연 지형과 결합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말하자면, 고창과 정읍의 지역 풍수 담론은 반암 권역의 두락암을 표성(杓星), 두승산을 괴성(魁星), 시루산·객망리를 성심(星心)으로 배열하는 상징적 해석 구조를 형성한다. 성심은 본고가 설정한 분석 개념으로서 전통 천문학의 고유 명칭이 아니며, 두락암과

*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E-mail: syd313@naver.com

두승산에 부여된 북두칠성 표상이 강일순 탄생지의 종교적 장소성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공간적 연계는 천기의 실제 이동이나 단일 용맥의 물리적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지형·지명·풍수 전승·종교적 기억이 결합하여 형성된 인문학적 공간 서사로 이해된다.

주제어 : 강일순, 증산, 객망리, 두락암, 반암 권역, 천문·지리 상응, 풍수 담론

Ⅰ. 머리말
Ⅱ. 천문·지리 상응 담론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 방법
Ⅲ. 반암마을 두락암과 객망리 일대의 천문·지리적 상응
Ⅳ. 고창 반암 권역의 풍수지리적 특징
Ⅴ. 반암 권역의 풍수 물형과 천문
Ⅵ. 성심(星心) 개념으로 본 시루산·객망리 일대
Ⅶ. 맺음말

Ⅰ. 머리말

동아시아의 전통적 세계관에서 하늘과 땅은 상호 감응하는 질서로 이해되었다. 하늘의 운행과 별자리의 형상은 지상의 산천 및 인간사와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관념은 천문·역법·풍수·국가 제의와 민간 신앙에 폭넓게 반영되었다. 지상의 산세와 수세를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담론도 이러한 천문·지리 상응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북두칠성은 전통 천문 질서에서 북극을 둘러 운행하는 성좌로서, 방위와 계절을 알려주는 표지이자 인간의 수명과 복록,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관장하는 종교적 상징으로 수용되었다.[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의 두락암 일대와 옛 객망리, 곧 현재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 일대에는 풍수, 지명, 산

1) 이순지, 『천문류초(天文類抄)』, 김수길·윤상철 옮김 (서울: 대유학당, 2013).

형과 암석, 지역 전승 및 종교적 기억이 중첩되어 있다. 반암마을 주변에는 두락암과 병바위, 인천강의 곡수, 천제단과 관련된 전승이 남아 있으며, 이 일대의 산세와 수세는 금반옥호형・선인취와형・옥녀탄금형을 비롯한 여러 풍수 물형으로 해석되어왔다.[2] 객망리는 증산 강일순이 태어난 곳으로, 시루산・망제봉・동죽산・두승산을 둘러싼 지형과 지명은 그의 탄생과 종교적 행적을 배경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3]

객망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두락암・두승산・시루산・객망리의 지형과 종교적 장소성을 직접 다룬 연구로 한정한다면, 먼저 고남식은 망제봉・객망리・시루산의 지명과 지형을 구천상제 신앙 및 정읍 지역에서 행해진 천지공사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객망리의 '망(望)'과 망제봉의 지명을 상제의 강세를 기다리는 대망의 의미로 해석하고, 정읍 일대가 대순사상에서 구천상제 신앙의 본원지로 의미화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4] 이 연구는 객망리와 시루산 일대의 지명 및 지형이 대순 신앙의 맥락에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해석되는지를 밝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신영대는 객망리 일대의 풍수지리적 의미를 형기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두승산과 방장산을 비롯하여 동죽산・망제봉・매봉・시루산으로 이어지는 지맥의 변화와 산세・수세를 현지답사로 검토하고, 객망리 일대가 강일순 탄생지로서 어떠한 풍수 국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논증하였다.[5] 이 연구는 객망리 일대의 지맥과 풍수 물형을

2) 김상휘, 『풍수담론 1: 모악산 평설』 (서울: 계간문예, 2015), p.158, pp.173-175, p.185; 김상휘, 『우리마을 이야기: 천마시풍 마명마을』 (고창: 고창군아산마명마을회, 2022), pp.4-5, pp.26-27.

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행록 1장 6절.

4) 고남식, 「강증산의 강세지(降世地)인 정읍시(井邑市)에 나타난 구천상제(九天上帝) 신앙과 그 양상: 전북 정읍시 망제봉・객망리・시루산의 암시 및 정읍 관련 천지공사와 관련하여」, 『대순사상논총』 40 (2022), pp.187-242.

5) 신영대,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풍수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지맥의 연결과정을 통한 형기론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6 (2023), pp.69-122.

구체적으로 밝힌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고창 반암 권역의 두락암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두락암·두승산·시루산·객망리에 부여된 북두칠성 표상이 어떠한 공간적 의미망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하면서, 반암마을 두락암과 객망리 일대에 형성된 천문·지리 상응 담론을 북두칠성 표상의 공간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반암 권역의 산수 구조와 풍수 물형이 두락암의 장소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각 권역에 부여된 북두칠성 표상이 어떠한 지형·지명·전승과 해석 논리를 통해 구성되는지 밝힌다. 셋째, 두승산에서 시루산·객망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맥과 풍수 물형이 강일순 탄생지의 종교적 장소성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고찰한다. 넷째, 자연 지형, 지역 전승, 종교적 기억이 결합하여 하나의 공간적 의미망을 형성하는 방식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전통 천문·풍수 문헌과 대순진리회 자료의 검토, 지도·위성영상 분석 및 현지답사를 병행한다. 구체적인 개념과 분석 절차는 Ⅱ장에서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두락암과 객망리 일대에 형성된 천문·지리 상응 담론의 기본 구조를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고창 반암 권역의 산세·수세와 풍수지리적 특징을 분석하고, Ⅴ장에서는 반암 권역의 풍수 물형과 두락암의 천문 장소성을 살펴본다. Ⅵ장에서는 두승산·망제봉·시루산·객망리의 지형과 지명 및 강일순 탄생의 기억을 검토하여 객망리의 종교적 장소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Ⅶ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한다.

Ⅱ. 천문·지리 상응 담론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 방법

1. 천문·지리 상응론과 풍수의 상징적 공간 구성

본고에서 말하는 '천문·지리 상응론'은 특정 시대에 독립된 학설이나 학파로 성립한 사상 체계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의 운행과 지상의 형세를 상호 연관된 질서로 이해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우주관을 지칭하기 위하여 본고가 사용하는 분석적 총칭이다. 여기에서 천문은 해와 달, 별자리, 기후 현상 등을 포함하는 하늘의 질서를 뜻하며, 지리는 산천의 형세와 방위, 토지와 수계가 이루는 공간적 질서를 의미한다. 천문과 지리는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우주의 생성과 변화라는 공통된 질서 안에서 상호 감응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천문과 지리의 관계를 해석하고 매개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천·지·인 삼재(三才)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서로 고립된 실체로 구분한 개념이 아니라, 우주의 생성과 변화에 함께 참여하는 세 차원을 가리킨다.[6] 『주역』「설괘전」은 천도(天道)를 음양(陰陽), 지도(地道)를 강유(剛柔), 인도(人道)를 인의(仁義)의 관계로 설명하고, 이들을 삼재의 도로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천문과 지리의 질서를 관찰하고 해석하며, 삶과 제의,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양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천문과 지리의 상응은 자연 현상 자체에 내재한 대응 관계만을 뜻하지 않으며, 자연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해석 행위를 포함한다.

---

6) 『주역』「설괘전」은 천도(天道)·지도(地道)·인도(人道)를 각각 음양, 강유, 인의의 관계로 설명하며 이를 삼재의 도로 제시한다.

『주역』「계사상전」의 "하늘에서는 상(象)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形)을 이루어 변화가 드러난다[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는 구절은 이러한 우주관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상'은 일월성신을 비롯하여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과 질서를 의미하고, '형'은 산천과 초목을 포함하여 지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형태를 뜻한다. 이 구절은 천상의 별자리와 지상의 산천이 외형적으로 일치한다는 의미보다,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의 변화 원리 안에서 서로 연관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재천성상(在天成象)·재지성형(在地成形)'은 특정한 산이나 마을을 천상의 별자리에 직접 대응시키는 고정된 공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천상의 질서와 지상의 형세를 상호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통적 사유의 근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고는 하늘·땅·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 우주관을 '천문·지리 상응론'이라 하고, 이 관념이 특정 장소의 지형·지명·전승에 적용되어 생산된 구체적인 해석과 서사를 '천문·지리 상응 담론'이라 정의한다.

앞서 말한 대로, 천·지·인의 관계에서 인간은 천문과 지리의 상응을 발견하는 해석 주체로 기능한다. 산과 물은 자연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명당·성지·피난처·신선의 거처 등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지형을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같은 산형이라도 관찰 위치와 시대적 상황, 지역 전승과 종교적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과 상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천문과 지리의 상응은 하늘이 땅에 일방적으로 투영된 결과로 환원되지 않으며, 자연 지형과 인간의 지각, 문화적 기억이 결합하여 형성된 해석적 관계이다.

동아시아 전통 천문체계에서 하늘은 삼원(三垣)과 이십팔수(二十八宿)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이해되었다. 삼원은 자미원(紫微垣)·태미원(太微垣)·천시원(天市垣)을 가리키며, 그 가운데 자미원은 천상의 중심 및 천제의 궁정과 연관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자미원의 천문구조와 이를 풍수 지형에 대응시킨 전통 도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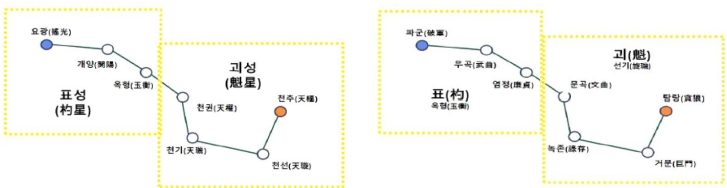


<그림 1> 자미원 천성지도[7]



<그림 2> 자미원 지형지도[8]

북두칠성도 이 중심적 천문 질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해석되었다. 이 별자리는 북반구 북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성군(asterism)으로, 큰곰자리의 꼬리와 엉덩이 부분을 이루는 일곱 개의 밝은 별로 구성되며, 동양 별자리로는 자미원에 속한다. 『진서』「천문지」는 북두칠성을 칠정(七政)의 추기이자 음양의 근본으로 설명하고, 사시를 세우고 오행을 고르게 하는 별자리로 기록하면서, 국자의 몸체를 이루는 앞쪽 4개의 별을 괴(魁), 그 손잡이를 이루는 뒤쪽 3개의 별을 표(杓)로 구분한다.[9]



<그림 3> 북두칠성 각 성(星)의 명칭과 별칭 (작도: 필자)

---

7) 徐善繼・徐善述, 『地理人子須知』(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0), p.38.

8) 같은 책, p.39.

9) 『晉書』「天文志上」. 『진서』는 "괴의 네 별은 선기이고, 표의 세 별은 옥형이다[魁四星爲旋璣, 杓三星爲玉衡]"라고 하며, 첫째부터 넷째 별까지를 괴, 다섯째부터 일곱째 별까지를 표로 구분한다.

고대로부터 북두칠성은 천문 관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길흉화복과 생로병사, 부귀영화와 불로장생 등을 관장하는 신성한 별로서 민간에서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북두가 계절과 방위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되면서 그 운행에는 시간과 질서를 조정한다는 의미가 부여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제왕의 권위, 인간의 수명과 복록, 재앙의 소멸 등을 관장한다는 신앙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본고가 다루는 북두칠성은 현대 천문학에서 규명하는 천체의 물리적 구조가 아니다. 북두칠성이 지역의 산천・지명・제의・종교적 기억을 조직하는 문화적 표상으로 기능하는 방식이 연구의 대상이다.

풍수는 천문・지리 상응의 우주관이 지상 공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식체계이다. 풍수에서는 땅을 고정된 물질로 보지 않고 기(氣)가 이동하고 머물며 응결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산줄기의 흐름은 용(龍), 생기가 집중되는 지점은 혈(穴), 혈을 둘러싼 산세는 사(砂), 기운을 모으거나 흩어지게 하는 물의 흐름은 수(水), 공간이 지향하는 방향은 향(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용・혈・사・수・향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조건이 아니라, 산과 물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국세(局勢)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는 분석 범주이다.[10]

풍수의 형기론(形氣論)은 산세와 수세, 지맥과 혈처 등 눈에 보이는 지형의 형세를 통해 기의 흐름과 응결을 해석한다. 형(形)은 관찰 가능한 산천의 외형이고, 기(氣)는 그 형세를 따라 움직이거나 머무는 생명 질서를 의미한다. 산형의 높낮이와 곡절, 지맥의 개폐,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방향, 혈처를 둘러싼 사격 등을 종합하여 공간의 안정성과 생기의 수렴 여부를 판단한다.[11] 따라서 형기론은 특정 산봉우리 하나의 모양만을 떼어 해석하기보다 산과 물, 주변 지세가 이루는 전체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

10)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서울: 민음사, 2001); 박봉주, 『한국풍수이론의 정립』 (서울: 관음출판사, 2002).

11) 양균송, 『감룡경・의룡경』, 김두규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2009); 채성우, 『명산론』, 김두규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2002); 徐善繼・徐善述, 앞의 책.

물형론(物形論)은 산이나 마을의 형세를 사람·동물·사물·신선 등의 형상에 비유하여 해석하는 방식이다. 선인취와형(仙人醉臥形),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금반옥호형(金盤玉壺形)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형은 자연 지형의 외형적 유사성을 기계적으로 판정한 명칭이 아니다. 관찰 지점과 지형의 전체적 배치, 지역에서 전승된 이야기와 지명, 그 장소에 기대된 사회적·종교적 가치를 함께 반영한다. 동일한 산이나 권역에 여러 물형이 전해지는 것도 관찰 위치와 해석 맥락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형을 연구할 때는 각 형국이 어떠한 위치에서 관찰되었으며, 어떤 산세와 수세 및 전승을 근거로 성립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풍수적 공간은 물리적 지형 위에 문화적 의미가 중첩되면서 형성된다. 공간이 인간의 경험과 기억, 감정과 가치에 의해 특정한 의미를 얻을 때 그것은 '장소'가 된다. 장소는 좌표로 표시되는 위치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자연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축적한 경험의 결절점이다. 경관 또한 눈앞에 주어진 자연 그대로라기보다, 사회와 문화가 자연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방식이 반영된 상징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풍수 문화 경관은 산세와 수세라는 자연적 기반, 지형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풍수 지식, 지역사회의 전승과 제의,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한 종교적 기억이 결합하여 형성된 공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상징적 공간 구성'은 자연 지형이 존재한 뒤 그 위에 임의적인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는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특정한 산과 바위, 물길과 마을이 선택되고, 지명과 물형, 지역 전승과 종교 서사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자연 지형은 해석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고, 풍수와 천문 표상은 개별 장소들을 관계 짓는 언어로 작용하며, 지역 전승과 종교적 기억은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 재구성한다.

본 연구는 두락암·두승산·시루산·객망리의 관계를 북두칠성 표상의 상징적 공간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각 장소의 대응은

천상의 별자리와 지상의 산형이 실제 위치와 축척에서 일치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암 권역의 두락암에 부여된 표성(杓星) 표상, 두승산에 부여된 괴성(魁星) 표상, 시루산·객망리에 집중된 강일순 탄생의 종교적 장소성이 하나의 공간 서사를 형성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틀을 의미한다.

'성심(星心)'은 전통 천문학에서 북두칠성을 구성하는 별이나 별자리 구획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이 아니다. 본고에서 성심은 두락암의 표성 표상과 두승산의 괴성 표상이 시루산·객망리의 종교적 장소성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개념이다. 두승산·망제봉·시루산·객망리 등의 지명과 산형은 이러한 상징적 연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성심은 북두의 천기가 실제로 이동하였음을 뜻하지 않으며, 지형·지명·풍수 전승·종교적 기억이 객망리를 상징적 중심으로 구성하는 해석 과정을 가리킨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가 설정하는 천문·지리 상응은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산세·수세·지맥·암석·방위와 같이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형적 층위이다. 둘째는 표성·괴성·물형·길지·명당과 같이 지형에 부여된 천문·풍수적 해석의 층위이다. 셋째는 제의·지역 전승·지명·강일순의 탄생과 행적처럼 장소의 의미를 축적하고 지속시키는 종교문화적 층위이다. 이 세 층위가 서로 결합하면서 반암마을 두락암과 객망리 일대는 하나의 상징적 공간 관계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가 말하는 천문·지리 상응은 장소들 사이의 물리적 인과관계, 단일 용맥이나 수계의 연속성, 북두 천기의 실제 이동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것은 지형·방향·지명·풍수 전승·종교적 기억이 결합하여 서로 떨어진 장소들을 하나의 해석 체계 안에서 연결하는 상징적·서사적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본고는 관찰 가능한 지형 자료와 해당 지형에 부여된 문화적 해석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양자가 결합하면서 장소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2. 연구 대상과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각 장소가 지닌 지형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에 따라 세 개의 분석 단위로 구분된다. 그것은 고창 반암마을·두락암 권역, 두승산 권역, 정읍 시루산·객망리 권역이다. 이 세 권역은 천문·풍수 표상과 지역 전승 및 종교적 기억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 분석 대상이다.

첫 번째 분석 단위는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과 그 주변의 두락암·병바위·차일봉·인천강 일대이다. 이 권역은 산세와 수세, 곡수와 암석 지형, 천제단 관련 전승 및 여러 풍수 물형이 집중된 곳이다. 특히 두락암은 반암마을의 풍수 문화에서 제의적·상징적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본고에서는 북두칠성의 표성(杓星) 표상이 구성되는 장소로 논의된다.

두 번째 분석 단위는 두승산과 그 주변 산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승산 자체의 산형과 수세, 선인포전형 및 관련 지명과 종교 기록을 검토하고, 이곳이 두 권역 사이의 상징적 매개 지점으로 해석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세 번째 분석 단위는 시루산과 객망리 일대이다. 객망리는 현재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 일대로, 강일순의 탄생지와 관련된 종교적 기억이 형성된 공간이다. 본고는 시루산의 풍수 물형, 망제봉·동죽산·매봉 등 주변 산세, 문방사우와 관련하여 해석되어 온 지명, 『전경』에 기록된 강일순의 탄생과 행적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자연 지형과 지명, 종교적 기억이 결합하여 객망리가 대순사상의 요람으로 의미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문헌 자료, 공간 자료, 현지답사 자료 및 지역 전승 자료로 구분된다. 문헌 자료에는 먼저 『주역』, 『진서』「천문지」, 『천문류초』 등 천문·우주론 관련 문헌이 있다. 이 자

료들은 삼재, 재천성상·재지성형, 북두칠성의 괴와 표 등 연구의 기본 개념을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풍수 관련 자료로는 『청오경』·『금낭경』·『감룡경』·『의룡경』·『지리인자수지』·『지리오결』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문헌은 용·혈·사·수, 장풍득수, 형기론과 물형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이론 자료로 사용한다.

종교 문헌으로는 『전경』·『대순진리회요람』을 활용한다. 『전경』은 강일순의 탄생지와 두승산·시루산 일대에서 이루어진 행적을 확인하는 일차 자료로 사용하며, 『대순진리회요람』은 천·지·인, 지기통일, 상제 강세에 관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자기 이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종교 문헌의 서술을 지형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동일시하지 않고, 해당 장소가 종교 전통 내부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는지를 보여주는 내부자적 담론으로 분석한다.

지역 자료로는 반암마을과 주변 풍수 형국을 다룬 김상휘의 저술과 지역 간행물, 고창과 정읍의 지명 및 향토 자료를 활용한다. 이들 자료는 현지에서 전승되는 지명과 물형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그런데 전승의 형성 시기와 전승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보다 지역의 현재적 장소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공간 자료로는 여러 지형도와 항공사진, 구글어스, 고지도 및 직접 작도한 산세도와 지맥도를 활용한다. 지형도는 산봉우리의 위치, 고도와 능선의 방향, 하천과 마을의 배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구글어스는 산세와 수계의 전체적인 배치, 주요 장소 사이의 거리와 방향을 파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고지도는 현재의 지명과 공간 구조를 과거의 행정·지리적 표상과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지도와 산세도·지맥도는 산봉우리의 위치와 고도, 능선의 방향, 수계 및 장소 사이의 거리와 방위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북두칠성과의 대응 관계는 지도상의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명·지역 전승·풍수 해석 및 종교적 기억을 함께 검토한다.

현지답사에서는 각 장소의 산세와 수세, 주요 암석과 봉우리, 마을

과 하천의 배치, 관찰 지점에 따른 산형의 변화를 확인한다. 사진은 특정 형국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보다, 연구자가 어떠한 위치와 방향에서 지형을 관찰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 자료로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한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분석 층위가 연구 대상을 구분하는 분석 범주라면, 이하의 네 단계는 자료를 검토하고 해석하는 구체적인 분석 절차에 해당한다. 그것은 첫째, 각 권역의 자연 지형과 공간 구조를 기술한다. 이 단계에서는 산봉우리와 능선, 하천, 암석, 마을의 위치를 지도와 현장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풍수적 가치 판단이나 천문 표상의 적용에 앞서 관찰 가능한 지형적 사실을 먼저 제시한다.

둘째, 각 지형에 부여된 풍수 물형과 지명 전승을 검토한다. 물형의 명칭, 전승 자료, 관찰 방향과 지형적 근거를 확인하고, 동일 장소에 여러 형국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혈처에 중첩된 확정적 판정으로 보지 않는다. 관찰 지점과 해석 맥락에 따라 형성된 복수의 풍수적 독법으로 이해한다.

셋째, 천문 표상과 지리적 장소의 대응 관계를 분석한다. 본고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상응 관계를 검토한다. 첫 번째는 형태적 유사성이다. 산형과 공간 배치가 북두칠성의 괴와 표, 또는 관련된 전통 천문 표상을 연상시키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는 공간적 관계성이다. 개별 장소들이 연구 대상 지역 안에서 어떠한 방향과 순서,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이루는지를 검토한다. 세 번째는 지명과 전승의 연관성이다. 두락암・두승산・망제봉・시루산・객망리와 같은 지명이 천문・풍수・종교 담론에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네 번째는 종교적 기억의 결합 여부이다. 특정 장소가 강일순의 탄생이나 행적, 대순사상의 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교적 의미를 획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네 기준 가운데 형태적 유사성 하나만으로 천문・지리 상응을 주장하지 않는다. 지형의 유사성이 지명과 지역 전승, 종교적 기억 및 공간적 관계와 함께 나타날 때 그 장소가 북두칠

성 표상의 일부로 구성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넷째, 각 권역에서 확인된 자료를 앞에서 설정한 상징적 공간 구성의 분석 틀에 따라 비교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형·지명·전승·종교적 기억이 결합하여 개별 장소를 선택하고 연결하며 종교적 중심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Ⅲ. 반암[12]마을 두락암과 객망리 일대의 천문·지리적 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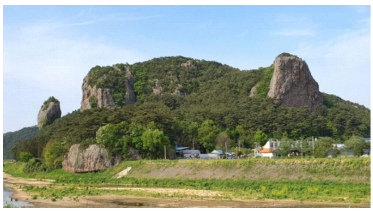
Ⅱ장에서 검토한 천문·지리 상응론을 전제로, 본 장에서는 『정감록』에 기록된 '부안 호암 아래(扶安壺巖下)'를 현재의 고창 반암마을로 비정하는[13] 지역 풍수 담론이 형성된 두락암(<그림 4>)[14] 일대를 풍수적으로 고찰한다. 이어서 증산 강일순 성사 탄강지인 시루산 객망리 일대(<그림 5>)에 대해, 북두칠성 표상이 반암 권역과 시루산·객망리의 지형·지명·종교적 기억에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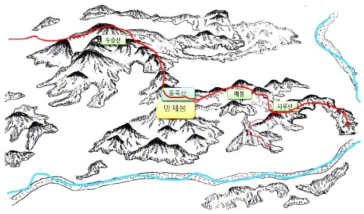
12) 반암(盤巖)은 소반바위를 뜻한다. 술병 병바위와 신선이 대취해 누운 자리 형국이라는 선인취와, 신선이 춤추는 모습의 형국인 선인무수 지명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선인취와는 곧 천계성이며 선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로 상징화되고 있다. 김상휘, 『풍수담론 1 : 모악산 평설』, pp.178-202.

13) 『정감록』 계열 문헌에는 십승지의 하나로 '부안 호암 아래(扶安壺巖下)'가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부안 변산 권역과 관련하여 이해되어 왔다. 김상휘는 조선 초기 행정구역의 변동, 반암마을 병바위의 명칭과 지형, 최남선의 『심춘순례』 등을 근거로 이를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에 비정하였다. 이 견해는 고창군의 2012년 조사 용역에서 제시된 지역적 비정에 해당한다. 본고는 이를 학계의 정설로 전제하지 않고, 반암 권역의 장소성을 구성하는 지역 풍수 담론으로 다룬다. 남궁경종, 「고창 아산면 반암마을, 정감록 십승지 중 한곳으로 밝혀져」, 《전북도민일보》 2012. 08. 09.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984, 2026. 3. 1. 검색).

14) 반암마을의 주산은 차일봉이며, 앞산, 즉 안산은 인천강을 끼고 두락암과 병바위를 품고 있는 덕산(德山)이다. 맞은편 마명마을에서도 안산이 된다. 김상휘, 『풍수담론 1 : 모악산 평설』, p.173 참조.



<그림 4> 병바위와 천제단이 있는 두락암 전경 (사진: 필자)



<그림 5> 객망리 일대 산세도 (작도: 필자)

노령산맥의 줄기를 타고 솟은 방장산은 반암 권역의 태조산으로, 두락암 일대는 선인취와형과 금반옥호형(金盤玉壺形) 등의 물형을 갖춘 길지로 이해된다. 다음의 용맥도는 이와 같은 반암마을의 산세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 금반옥호형의 반암마을[15]



<그림 7> 반암마을 일대[16]

반암마을은 차일봉을 주산으로 하고 두락암과 병바위를 주요 장소로 한다. 이 가운데 두락암은 반암 권역의 천문·풍수적 장소성을 보여주는 핵심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차일봉과 두락암 천제단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15) 유청림, 『옥룡자유세비록』 (대전: 종려나무, 2010), p.46.
16)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web, 2026. 4. 20. 검색).



<그림 8> 반암마을의 주산 차일봉



<그림 9> 두락암 정상 천제단

선운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구황봉, 안장 바위, 차일봉, 옥녀봉, 소요산, 인천강, 즉 소반 바위를 상징하는 금반옥호형(金盤玉壺形), 선인취와형(仙人醉臥形), 괘등형(掛燈形), 와우형(臥牛形),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 천마시풍형(天馬嘶風形),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등 다양한 풍수 물형(物形)이 전승되는 곳이 반암 권역이다.[17] 이러한 풍수 물형은 반암 권역의 지형과 장소 전승에 부여된 복수의 해석을 보여준다.

반암마을 존좌암이라고도 불리는 두락암은 미륵, 신선, 성인을 낼 자리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명이며, 북두칠성 기운이 두락암으로 이어졌다고 선현들이 오래전부터 말해왔다고 전해진다. 호남의 3대 실학자인 황윤석, 선운사 선사 석전 박한영 스님, 병바위를 답사한 육당 최남선 등은 북두칠성의 천기가 삼신사상(三神思想), 천손사상(天孫思想), 생명사상(生命思想)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두락암은 지역 풍수 담론에서 북두칠성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표성으로 해석된다.[18] 이러한 해석은 두락암의 천제단과 주변 암석 경관에 부여된 천문적 장소성을 보여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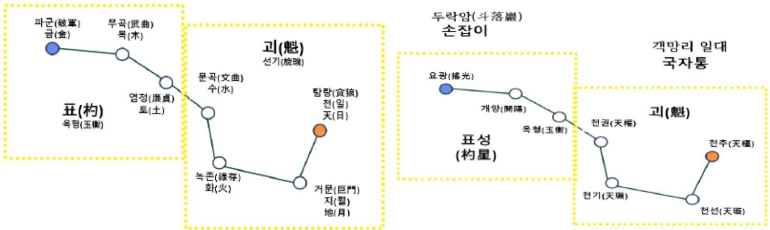
17) 김상휘, 『풍수담론 1 : 모악산 평설』, p.175.

18) 지역 풍수 담론에서 두락암은 공간 서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표성에 대응하는 장소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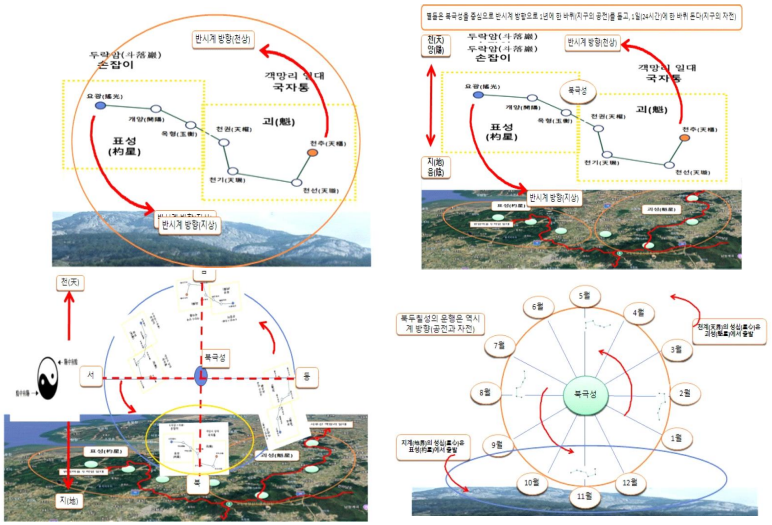
<그림 10> 천제단이 있는 두락암(전좌바위)과 병바위 일대 (사진: 필자)

지역 풍수 담론을 활용하여, 강일순의 탄생지를 표성과 괴성의 상징 관계 및 북두칠성 일월오성도(日月五星圖)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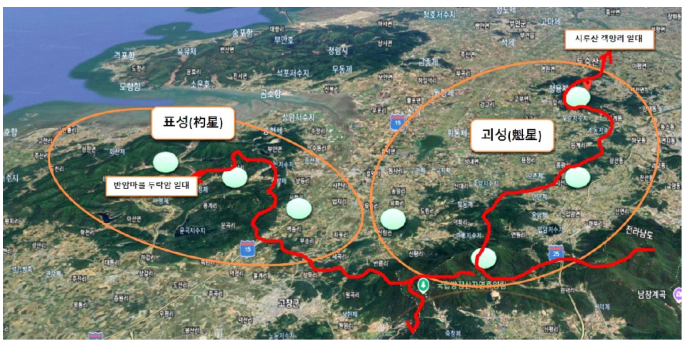
<그림 11> 북두칠성 일월오성도와 탄강지의 상징적 대응도 (작도: 필자)

대순사상 관련 풍수 담론에서는 천지공사 과정의 지기통일(地氣統一)을 지역 공간의 풍수적 해석과 연결한다. 이 관점에서 두락암과 두승산에 부여된 북두 표상은 시루산·객망리의 종교적 장소성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그림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북두칠성의 겉보기 일주운동과 지역 풍수 담론에서 구성된 상징적 연계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2> 지구 자전에 따라 북극성 주위를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두칠성의 일주운동 (작도: 필자)

대순 신앙의 관점에서 시루산·객망리 일대는 천·지·인 삼재의 조화와 해원상생의 이상을 구현할 인물의 탄생을 예시하는 장소로 의미화된다. 반암 권역과 시루산·객망리의 상징적 관계를 성심(星心)이라는 분석 개념과 지맥에 관한 풍수 해석을 통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반암마을 두락암과 시루산 객망리 일대 천문·지리적 상응도 (작도: 필자)[19]

반암 권역과 객망리 일대에 관한 지역 전승은 천문 표상과 풍수 해석을 결합하여 두 지역의 장소성을 설명한다. 천문인 하늘과 지리인 땅과 천지의 중심에서 상하로 감응하고 소통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삼재의 통일성은 곧 천명사상(天命思想) 및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과 연관이 있으며 하늘은 곧 최고신의 초월적 지위와 연결된다. 『대순진리회요람』의 응원(應元)이라는 것은 천체(天體)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모두 천명에 응(應)하지 않고 생성됨이 없음을 뜻한다.[20] 이러한 천문·지리 상응의 관념은 각 장소의 지형적 특징이 지역 전승과 종교적 기억을 통해 해석되는 문화적 배경을 제공한다. 특히 객망리는 '손바래기'라는 지명과 강일순 탄생의 기억이 결합하면서 비범한 인물의 출현을 기다린 장소로 의미화되었다.

Ⅳ. 고창 반암 권역의 풍수지리적 특징

본 장에서는 고창 반암 권역의 지형적 배경과 인천강의 곡수 구조를 검토하고, 이러한 산수 배치가 지역 풍수 담론에서 길지의 조건으로 해석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먼저 고창과 반암 권역에 형성된 인걸지령 담론을 검토한 뒤, 인천강·병바위·두락암을 중심으로 산세와 수세가 결합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1. 인걸지령(人傑地靈)의 고창

19)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web, 2026. 4. 20. 검색).
20)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Ⅰ):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p.125 재인용.

산과 들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고창의 지형은 풍수지리적으로 안정을 이룬 인걸지령(人傑地靈)의 땅이다. 풍수지리상 인물이 많이 나는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 위인과 현대의 정·재계 인사를 다수 배출한 '인물의 고장'이자 '의향(義鄕)', '예향(藝鄕)'으로 알려져 있다. 풍수적으로도 기복연면(起伏連綿)하며 변화하는 산세가 줄기차게 동남쪽으로 뻗어 인걸지령의 땅이라 불리는 고창은 훌륭한 인물이 끊이지 않고 태어난다고 하여 인맥의 고장으로도 불린다.

고창은 백제 때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으로 불리다가 신라 경덕왕 16년 지명 변경으로 인해 현재의 지명이 되었다. 이곳은 내장산과 백암산을 거쳐 서쪽으로 달려온 호남정맥에서 갈라져 나온 노령산맥이 힘차게 흘러내리다가 솟구쳐 오른 방장산 아래 비교적 완만하고 평탄한 지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창의 젖줄이자 선비의 강으로 불리는 인천강이 뭇 산과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창은 고인돌 문화와 칠성신앙이 함께 전승되어 온 지역으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중시하는 전통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붉은 토질의 대지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토기(土氣)를 품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강인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온 터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21] 필자는 이 지역이 '인물의 고장'으로 회자되어 온 배경에는 하늘을 공경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기개, 그리고 공동체의 대의를 중시하는 지역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지역의 역사적 기억과 인물 전승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창현의 옛 지도에 나타난 반암 권역은 다음과 같다.

---

21) 전북소설가협회, 「풍수명인 김상휘 박사의 '정감록 십승지를 걷다': 고창편」, 《소설전북》 29 (전주: 전북소설가협회, 2021), p.58.



<그림 14> 고창현 지도22)

고창 일대는 호남정맥에서 영산기맥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있다. 산세의 흐름으로 볼 때, 동남부의 노령산맥으로부터 이어진 산줄기에는 방문산, 방장산, 문수산, 고산 등 비교적 높은 산들이 솟아 있으며, 북서쪽으로 경관이 수려한 선운산이 있는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대는 줄포만을 사이에 두고 경수산, 소요산 등 비교적 낮은 산들이 솟아 있다.

2. 길지를 상징하는 곡수(曲水)와 북두문화(北斗文化)

고창의 젖줄이며 반암마을을 곡수(曲水)로 감싸 흐르는 인천강은 반암 권역의 지기를 보호하며 그 도리를 다하고 있다. 고창을 대표하는 젖줄이자 명당수(明堂水)로 병바위와 두락암을 감싸 흐르는 인천강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22) 김상휘, 『풍수담론 1 : 모악산 평설』, p.185 지도 재인용.



<그림 15> 고창을 대표하는 곡수(曲水)의 인천강 (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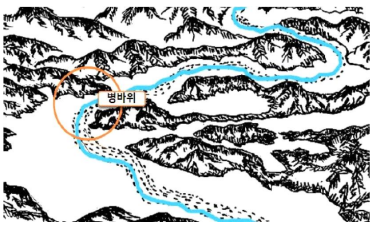


<그림 16> 곡수(曲水)의 인천강 (사진: 필자)

인천강은 고창을 상징하는 신비의 강으로 굽이굽이 명당수를 이루며 병바위를 만나 반암마을과 최상의 궁합을 이룬다. 반암마을은 풍수적으로 뛰어난 길지이며 마을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수려한 산세와 인천강의 물줄기, 병바위, 두락암 등 곳곳에 솟아 있는 상서로운 서암(瑞巖)이 산과 물의 조화를 이루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듯, 반암마을에는 호남의 8대 명혈 선인취와혈(仙人醉臥穴)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르기까지 많은 혈(穴) 자리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23] 고지도에 나타난 병바위와 반암마을을 감싸 흐르는 수세를 다음 그림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세는 반암마을을 십승지로 비정하는 지역 풍수 담론에서 주요한 입지적 근거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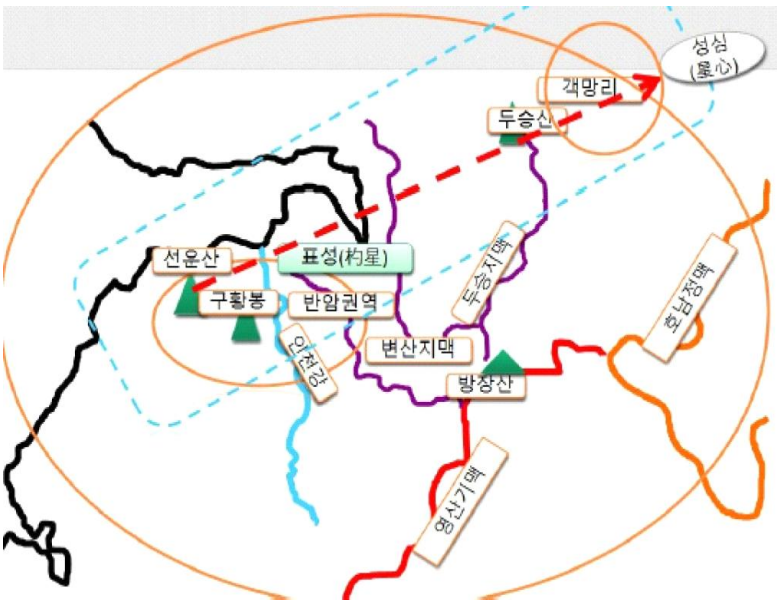
<그림 17> 병바위 (해동지도, 1872년 지방지도)



<그림 18> 반암마을 앞산 두락암과 병바위 (작도: 필자)

23) 같은 책, p.158.

풍수에서 구곡수(九曲水)는 산천의 기운을 모이게 하는 지극히 좋은 명당수인데, 가장 반기는 대표적인 물의 흐름으로 혈장을 구곡수가 감싸안듯 나가면 큰 부자가 나온다고 하는 강이나 하천의 흐름을 말한다. 병바위와 천제단이 있는 두락암을 중심으로 반암 권역과 시루산·객망리의 상징적 연계 구조를 Ⅱ장에서 설정한 분석 틀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9> 반암 권역과 객망리의 상징적 연계도
(작도: 필자)

천제단이 있는 두락암과 덕산을 안산으로 삼고 있는 반암마을을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 천제단이 있는 두락암과 덕산을 안산으로 삼고 있는 반암마을 전경[24]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 풍수 담론에서, 방장산·두승산·병바위·두락암·시루산·객망리를 하나의 지맥 서사 안에서 연결한다. 이 서사에서 시루산·객망리 일대는 산세와 종교적 의미가 집중되는 중심 장소로 해석된다. 두승산과 주변 산릉은 중심 지점을 감싸는 사세로, 좌우 산줄기는 청룡과 백호로, 전면과 그 너머의 산세는 안산과 조산으로 이해된다. 또한 정읍천·고부천을 비롯한 주변 수계는 산세와 어우러져 수구와 장풍득수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Ⅴ. 반암 권역의 풍수 물형과 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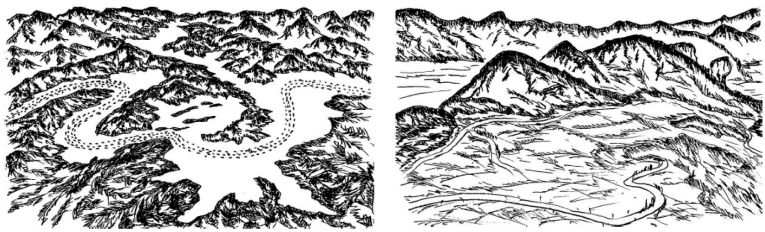
1. 물형론과 반암마을 권역 풍수

Ⅱ장에서 검토한 재천성상(在天成象)·재지성형(在地成形)의 관념을 전제로, 이하에서는 반암 권역의 산세·수세와 풍수 물형이 어떠한 천문적 장소성으로 해석되는지 살펴본다.

반암의 산형은 비록 지상에 있으나 그 땅에는 정광(精光)[25]이 있어

24) 같은 책, p.194.

성차(星次)[26]에 속한다. 선인(仙人)과 관련된 형상을 갖춘 길지로 세인들의 눈길을 끄는 반암마을 권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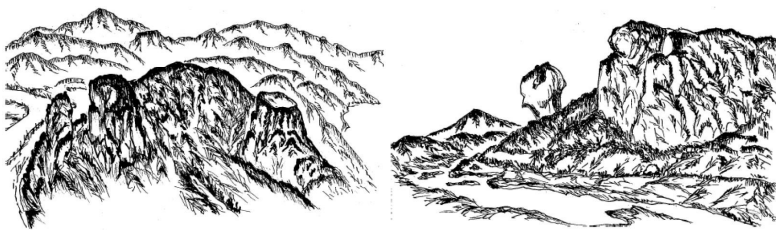


<그림 21> 반암 권역 일대와 반암마을 앞산 두락암 전경 (작도: 저자)

반암마을 권역 안은 백리곡수(百里曲水) 인천강이 호암(壺巖), 즉 병바위를 안고 선운산 입구로 파구를 형성하며 물이 흘러나가는 모습이다. 반암마을 주변은 인천강을 젖줄 삼아 반암 권역 8경과 호암 33경이 산수 유정의 극치를 이루며 명당 길지를 만들어 냈다. 인천강 줄기는 반암 권역을 품고 배산임수의 국세를 이루었다. 풍수에서 물길은 고갯길을 끊고, 도로는 고갯길을 끊지 못한다. 이처럼 마명마을 중심 반암 권역 전반은 산수가 수려해 풍수 형상과 관련한 담론들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며 흥미진진하다. 반암마을 주변 산들은 선운산, 차일봉, 소요산, 도솔산, 구황봉, 선인봉, 우산봉, 옥녀봉 등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장풍국(藏風局)으로 반암, 마명, 탑정, 호암, 영모정, 강정, 선동 마을이 포근하게 공간적 조화를 이룬다.[27] 반암마을의 앞산이자 지역 풍수 전승에서 천기와 관련된 제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두락암 천제단의 상징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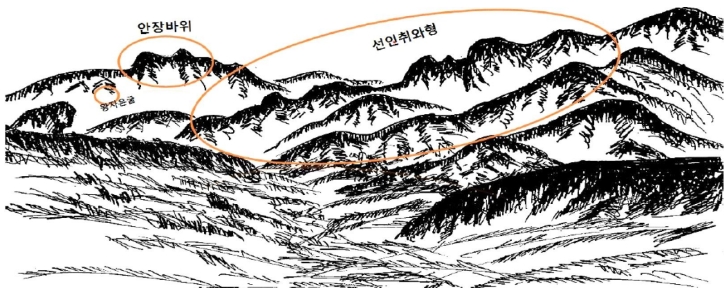
---

25) 천체(天體)의 일월오성(日月五星)이 뿜어내는 정밀하고 밝은 순수한 기운.
26) 28수의 차례. 각(角), 항(亢), 저(氐), 방(房), 심(心), 미(尾), 기(箕) 등이다.
27) 김상휘, 『풍수담론 1 : 모악산 평설』, p.174.



<그림 22> 천제단이 있는 두락암과 병바위 전경 (작도: 필자)

반암마을 권역 또한 주변 마을의 산세와 수세 특징 등을 형기의 이치로 찾아볼 수 있으며, 반암마을 주변을 끼고 흐르는 인천강(仁川江) 너머 안장 바위와 구황봉을 풍수 형국으로 선인취와형 또는 호승예불형으로도 부르고 있다.[28] 사진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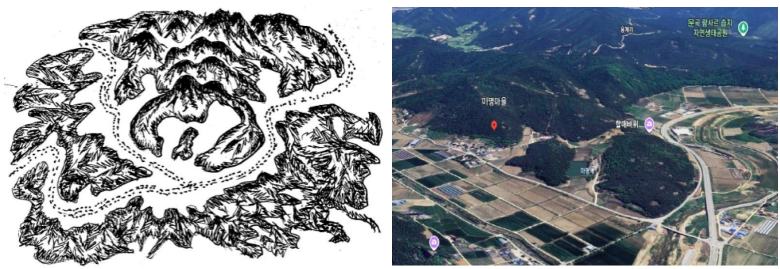
<그림 23> 선인취와형의 구황봉과 안장바위 (작도: 필자)



<그림 24> 선인취와형의 구황봉 (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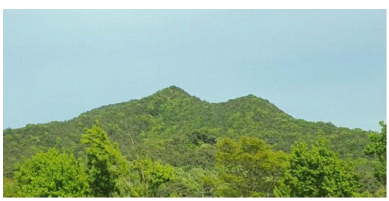
28) 김상휘, 『우리마을 이야기 : 천마시풍 마명마을』, pp.4-5.

풍수에서 사물이나 지형의 형태로 명당 혈처(穴處)를 가늠하는 것은 산과 물이 화합하고 융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공간적 조화에 의한 최적의 장소를 의미한다. 반암 권역 마명마을의 주산 옥녀봉을 풍수 물형(物形)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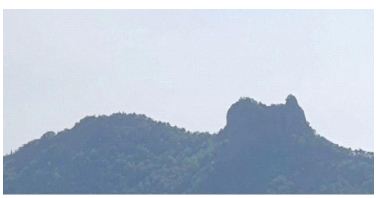


<그림 25>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의 마명마을[29] (작도: 필자)

반암 권역을 장식하고 있는 풍수 물형론을 위시하여 마명마을의 경우, 주산 옥녀봉은 아름다운 여인이 거문고를 타는 형국, 마명마을 옥녀봉을 가까이 바라보면 쌍봉은 마치 천마가 바람을 가르며 우는 형국인 천마시풍형(天馬嘶風形)이 된다.[30] 풍수 형기의 출발은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 삼자에 대해서 융합과 조화를 더한 실천과 응용에 있다. 태고로부터 역(易)의 이치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림 26> 마명마을의 주산 옥녀봉
(사진: 필자)[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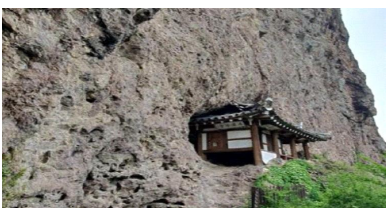
<그림 27> 안장바위 (사진: 필자)

29)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web/, 2026. 4. 20. 검색).
30) 김상휘, 『우리마을 이야기 : 천마시풍 마명마을』, pp.26-27.

2. 선인(仙人)과 관련된 반암마을의 풍수적 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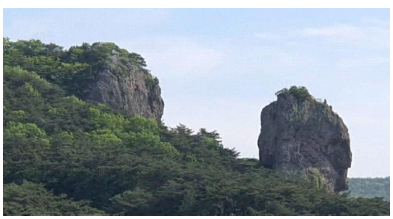
지역 풍수 담론에서는 방장산·두승산·두락암·반암마을의 산세를 선인형국을 구성하는 풍수적 관계로 해석한다. 선인형국은 구황봉·안장바위·옥녀봉·차일봉·두락암·병바위와 인천강이 이루는 구체적인 지형 배치를 바탕으로 해석된다. 구황봉과 안장바위 일대는 선인취와형(仙人醉臥形) 또는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으로, 옥녀봉은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과 천마시풍형(天馬嘶風形)으로 이해되어 왔다. 두락암과 병바위는 반암마을 전면의 암석 경관과 제의적 장소성을 구성하며, 인천강의 곡수는 이들 산세와 암석 지형을 감싸는 수경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지형 요소의 결합이 반암마을을 선인과 관련된 풍수 공간으로 해석하는 구체적 근거가 된다.





<그림 28> 두락암과 두암초당
(사진: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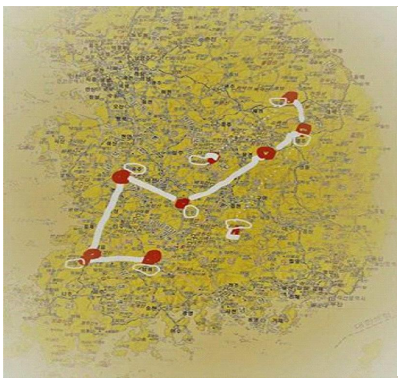




<그림 29> 병바위와 소반바위 일대
(사진: 필자)

31) 옥녀봉을 가까이 바라볼 때 쌍봉은 천마시풍형이 된다.

동아시아 전통 천문사상에서는 천문과 지상의 변화가 상호 대응한다는 천인상응(天人相應)의 관념에 따라, 천문 현상을 관찰하여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해석하고 그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김상휘의 지역 풍수 해석에서는『정감록』계열 문헌에 나타난 십승지를 북두칠성의 배열을 상징하는 두성도(斗星道)와 연결한다.[32] 이 해석은 영월·봉화·예천·가야·유구·마곡·무풍·운봉·고창 반암 권역 등을 북두칠성의 공간적 상응 체계로 배열하고, 고창 반암 권역의 두락암과 존좌암 등의 지명에서 국자 형상과 관련된 상징성을 찾는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두성도는 십승지의 역사·지리적 위치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여러 장소를 북두칠성 표상으로 연결하는 풍수적 해석 모형에 해당한다. 이것을 다음 그림에 제시하였다.



<그림 30> 북두칠성 성도
(김상휘 2015작)[33]



<그림 31> 지역 풍수 담론에서 구성한
북두구성의 공간적 대응도 (작도: 필자)

32) 전북중앙, 「차별과 탄압으로부터 견뎌낸 서북인 '생존의 터'」, 《전북중앙》 2025. 3. 4.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680, 2026. 3. 1. 검색).
33) 전북중앙, 「차별과 탄압으로부터 견뎌낸 서북인 '생존의 터'」, 《전북중앙》 2025. 3. 4.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680, 2026. 3. 1. 검색).

영월을 기점으로 남서 방향으로 주요 지점을 연결할 경우 북두칠성의 배열과 유사한 공간적 대응 관계가 나타난다고 본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영월은 국자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추성(樞星)의 위치에 대응하며, 무주·무풍·공주 유구·남원 운봉·고창 반암 병바위 등은 국자의 몸체인 괴성(魁星)에 상응하는 공간적 배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북두칠성의 상징성을 지리적 공간에 투영하여 해석한 하나의 인문 지리학적 관점으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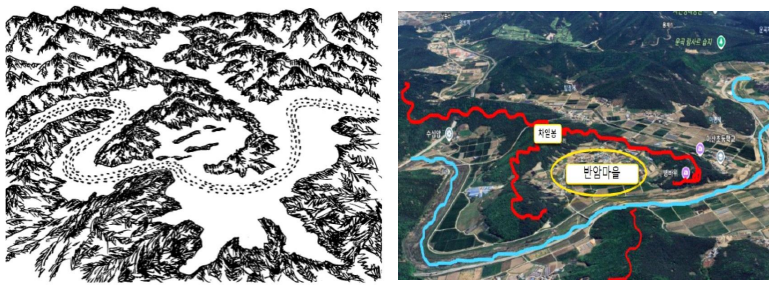
수려한 영봉으로 솟구친 선운산과 소요산의 정기가 병풍처럼 펼쳐진 산줄기와 물줄기를 배경으로 고창 반암마을 두락암 일대는 유연하게 흐르는 인천강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산들과 물줄기들이 산수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청정한 자연 형세를 빚어낸 풍수와 산천경개가 뛰어난 고장이다. 병바위와 두락암은 반암 권역의 풍수 문화에서 북두칠성의 천기와 제의적 장소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상의 분석은 두락암에 부여된 표성 표상이 반암 권역의 산세·암석 경관·제의 전승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3. 산과 물이 상응(相應)하는 산진수회(山盡水回) 이상향(理想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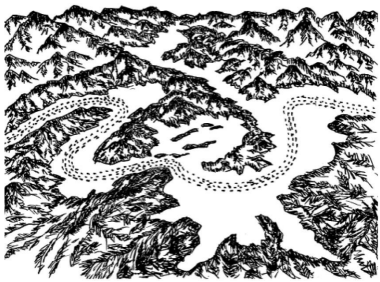
<그림 32> 천계성을 상징하는 선인취와(호승예불)의 구황봉 일대 (사진, 작도: 필자)

반암마을의 주산인 차일봉에서 흘러내린 청룡의 줄기가 국사봉이 후탁(後托), 즉 후면에서 받쳐주는 가운데 유연하고 길게 반암마을을 감싸며 천제단이 있는 두락암과 호암, 즉 병바위 일대로 마을의 지기를 보호하며 수구막이인 한문(捍門)이 구곡수의 형태로 마을의 횡수국을 이루는 인천강과 만나 산과 물이 유정(有情)한 지리의 극치를 이룬다. 산과 물이 어울려 사귀는 반암마을의 산과 물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 반암 권역 용맥의 흐름과 수세도 (구글 어스, 작도: 필자)

필자가 현지 지형을 고찰한 결과, 반암마을의 수구막이 역할을 하는 한문(捍門)은 두 곳으로 해석된다. 마을 시정(詩亭)에 걸린 '선인취와(仙人醉臥)' 현판을 기준으로 좌우를 살펴보면, 왼쪽의 자갈등 고갯마루와 오른쪽의 병바위가 각각 청룡과 백호 방위의 한문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일봉을 중심으로 좌측을 감싸는 자갈등 고갯마루는 청룡의 한문에, 우측의 병바위와 구황산 일대의 바위는 백호의 한문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은 풍수적 관점에서 두락암 천제단의 기운이 외부로 분산되는 것을 제어하는 상징적 경계 지형으로 이해된다. 지역 풍수 담론에서는 차일봉으로 이어지는 내룡의 높낮이와 굴곡을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는 뱀의 형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설정된 반암마을의 용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반암마을 용맥도 (작도: 필자)



<그림 35> 위성으로 본 반암마을 용맥도 (구글어스, 작도: 필자)

필자의 현지답사에 따르면, 두락암은 반암마을 앞산에 위치한 제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고창 지역을 대표하는 천제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민들은 두락암을 존엄하고 존귀한 인물이 앉을 자리를 의미하는 '존좌암(尊座巖)' 또는 임금의 집이라는 뜻의 '전좌암(殿座巖)'으로도 불렀다고 전한다. 현재 천제 의례는 전승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에는 가뭄 시 기우제와 음력 유월 농신제, 칠석의 칠성고사 등이 이곳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 두락암은 지역 풍수담론에서 북두칠성의 기운이 부여된 제의적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반암 권역에서 두락암의 표성 표상이 형성되는 지역적 토대가 된다.

Ⅵ. 성심(星心) 개념으로 본 시루산·객망리 일대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설정한 성심 개념을 적용하여 망제봉·동죽산·시루산·객망리의 지형과 지명, 풍수 물형 및 강일순 탄생의 기억

이 객망리의 종교적 장소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단, 이 장에서 활용하는 객망리·시루산·두승산 일대의 지형 자료와 현장 관찰 가운데 일부는 신영대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다. 선행 연구가 지맥의 연결과 형기론적 국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고는 해당 자료를 북두칠성 표상, 지역 전승 및 종교적 기억이 결합한 상징적 공간 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1. 객망리 일대의 천문·지리적 풍수 물형(物形)

본 절에서는 방장산에서 두승산을 거쳐 시루산·객망리로 이어진다고 해석되는 지맥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형 해석이 객망리의 종교적 장소성과 결합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아래 그림은 해당 지맥에 대한 지역 풍수 담론의 공간적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6> 시루산 객망리에 이르는 지맥의 흐름도 (작도: 필자)

시루산은 일반적인 산을 의미하는 지명 외에 특별히 종교 철학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시루가 의미하는 심원한 의미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시루는 종교 문화와 철학 등을 하나로 융합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한 참다운 진리로 승화시켜 사상이나 종교적 가치를 완성해 내는 '큰 그릇'이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본다. 전통적인 시루의 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7> 청동기 시대의 시루[34]



<그림 38> 시루[35]

종교 철학적으로는 시루의 형상이 하늘과 땅의 중심이며, 새로운 세상의 문명을 열고 우주 천지간의 조화로운 기운이 모이는 풍수적 길지와 세상을 구제할 큰 도량을 갖춘 인물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세상에 성현이 출현할 때는 여러 표징이나 성인의 출현을 예지하는 지명·풍수·천문 등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한다. 풍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객망리 증산 강일순 성사 탄강지는 현재 '신송마을'[36]로 부르고 있다.[37] 두승산에서 망제봉, 객망리 시루산 일대에 이르기까지 지형과 지세의 특징에 따라 많은 풍수적 형기의 골간이라 할 수 있는 형국 등 풍수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천기(天氣) 표상과 인걸지령(人傑地靈)의 길지

객망리 일대에는 용맥과 지맥의 변화, 천지 음양의 이치 및 인물 출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 풍수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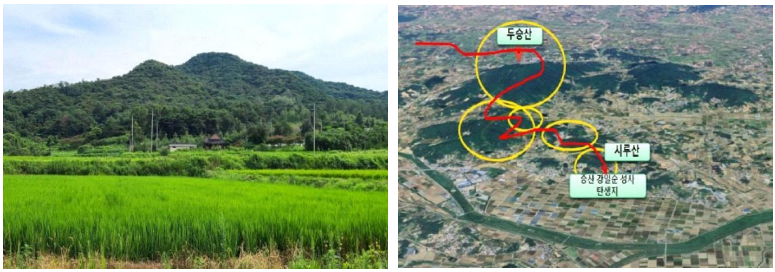
---

34) 《Wikimedia Commons》, Ryuch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42627919, 2026. 4. 20. 검색),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35) 《나무위키》, 「시루」 (https://namu.wiki/w/시루, 2026. 4. 20. 검색).

36)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井邑市) 덕천면(德川面) 신월리(新月里) 신송(新松)마을.

37) 『전경』, 행록 1장 6절.



<그림 39> 망제봉과 위성으로 바라본 지맥의 흐름도 (사진: 필자)[38]

인재(人才)가 다수 배출되는 지역은 북극성, 북두칠성, 견우성·직녀성 등 주요 항성(恒星)의 상징적 질서와 지상에서 발현되는 산천의 생기가 상호 응답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천문의 운행과 지리의 형세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인간의 탁월한 인물이 출현한다는 전통적 인식과도 부합한다. 풍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역은 용(龍)의 맥동이 유연하게 흐르며, 그 기운이 응집되는 혈(穴)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이를 감싸는 사(砂)가 균형을 이루며, 수(水)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은 용·혈·사·수의 조화는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생명의 기운을 배양하는 터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 강일순 성사의 탄강지인 객망리는 천·지·인의 삼재(三才)가 조화를 이루는 국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천문적 상징성과 지리적 구조가 교차하는 공간으로서 성인의 출현을 예비한 장소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 풍수 형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산세와 지리적 형상은 전통적으로 신선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시루산을 중심으로 한 지형과 지명을 분석해 보면, 증산 강일순 성사의 탄생지인 객망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역경의 팔괘 체계에서 남쪽을 상징하는 이방(離方)에 해당하는 공간에 등

38)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search/두승산, 2026. 4. 20. 검색).

판재와 같은 지명이 존재한다. 이는 빛을 밝히는 등불 혹은 독서를 위한 등잔의 상징과 연결되며, 나아가 문방사우와 관련된 지명들이 유기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명 및 지형의 상징체계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리적 공간이 지닌 문화적·사상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천문적 질서와 지리적 형세, 그리고 인문적 상징이 상호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특정 인물의 출현과 그 의미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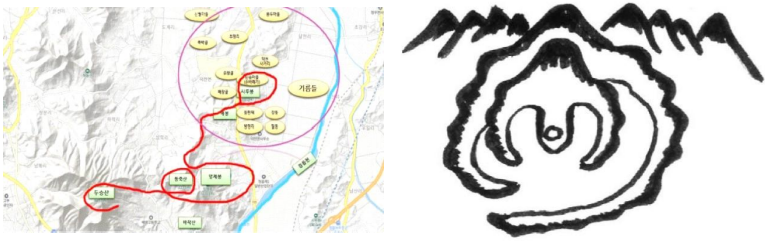


<그림 40> '선인독서형'의 시루산 일대와 탄강지 성천(聖泉) (사진: 필자)

한편, 시루산과 관련된 상제의 행적 가운데 『전경』에 나타난 호둔(虎遁), 즉 호랑이로 변신한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39] 이것은 기문둔갑에서 수행되는 법술의 일종으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초월적 존재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적 행위로 이해된다.[40] 이러한 기록은 해당 지역의 풍수적 형국이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신이(神異)적 의미와 결합된 공간임을 시사한다. 증산 강일순 성사의 탄강지를 예시하는 주변의 객망제(客望堤),[41] 문방사우(文房四友)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벼루

39) 『전경』, 행록 2장 7절, 교법 3장 19절.
40) 차선근·박용철, 「기문둔갑, 그리고 강증산의 종교적 세계」, 『종교연구』 77-3 (2017), p.209.

를 상징하는 연촌(硯村), 강학(講學) 공간을 의미하는 강동(講洞), 붓을 의미하는 필동(筆洞) 등이 확인된다. 아울러 배장(拜將)골, 유왕(留王)골, 기름들, 등판재, 덕천 사거리, 부정리(扶鼎里) 등의 지명은 신인(神人)의 탄강을 예고하는 종교적 상징성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이러한 지명들이 구체적 물형(物形)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루산의 산형이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 지명은 이와 연계된 상징 체계를 구성하는 해석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경』의 관련 내용을 근거로 시루산 일대를 고찰하면, 해당 지역의 지명은 선인독서형과 유기적으로 결부된 상징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인독서형과 관련하여 탄강지 일대의 지명과 지맥 흐름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탄생지 일대의 지명과 지맥 흐름도와 선인독서형과 시루산 (작도: 저자)[42]

공부와 관련된 부수적인 주변 지명들은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의 시루산과 연계된 상징적 경관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학문과 수양, 그리고 성인의 출현을 예시하는 풍수적 상징 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객망리는 전통적

41) 농사에 사용하기 위해 물을 대어 놓은 곳.
42) 《네이버 지도》, 「지형지도」 (https://map.naver.com/v5/?c=15,0,0,2,dh, 2023. 4. 10. 검색).

인 풍수 명국의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명과 지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인문지리적 특수성을 지닌다. 풍수적 명국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넘어, 객망리가 한국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점은 자연 지형과 상징 체계, 그리고 인물 탄생 설화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의미망(意味網)'의 형성에 있다. 즉, 산세와 수세(水勢)가 이루는 물리적 조건 위에 학문, 도덕, 신성성 등의 상징이 지명과 결합됨으로써, 특정 인물의 탄강을 예비하고 정당화하는 공간적 서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독자성이 확인된다.

3. 두승산과 시루산·객망리의 지형 및 표상

1) 국자통 내 괴성(魁星)에 속한 두승산의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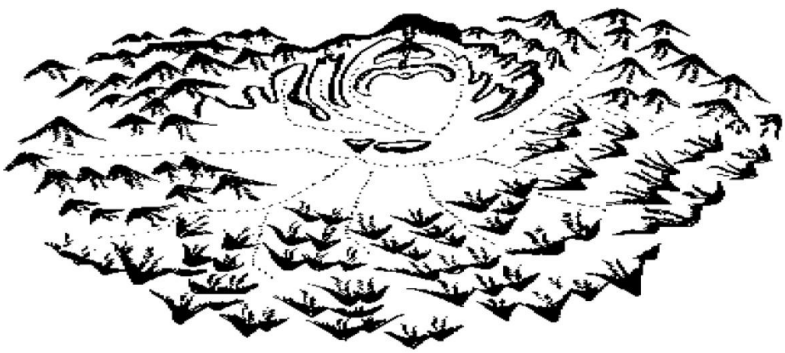
두승산은 정읍 북방의 호남평야 가운데 독립적으로 솟아 있으며, 지역 풍수 담론에서 방장산 계통의 지맥이 망제봉·동죽산·시루산으로 이어지는 결절점으로 해석된다. 본 절에서는 두승산의 산형과 지명, 선인포전형 전승 및 강일순의 행적 기록을 검토하여 이 산에 부여된 천문적 표상이 어떠한 자료와 해석 논리를 통해 구성되는지 살펴본다.

두승산은 호남정맥에서 분기한 영산기맥에 속하며, 평야 가운데 독립적으로 솟아 있어 지역 경관에서 뚜렷한 중심성을 지닌다. 지역 풍수 담론은 두승산의 산세가 망제봉과 동죽산을 거쳐 시루산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며, 이를 오성 산형과 장거리 행도(行度)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진서』「천문지」에서는 북두칠성을 두괴(斗魁)와 두표(斗杓)로 구분하여 '선기옥형(璇璣玉衡)'이라고 한다. 이것은 천(天)·지(地)·인(人)·시(時)·음(音)·율(律)·성(星)을 상징하는 우주 질서 체계로 해석된다. 하늘의 중심인 자미원에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28수 안에는 태미원, 밖에는 천시원이 위치한다. 하늘의 중추적 지위는 자미원으로써 28수가 사방칠사(四方七舍), 즉 동서남북으로 자미원을 호위한다. 자미원과 관련하여 풍수 고전에 다음의 기록이 있다.

> 자미궁의 천극은 태을이 보좌하고 있으며, 주권자는 사방의 중심에 자리하여 남쪽을 향해 나라를 다스린다. 천시는 동궁에 해당하고, 소미는 서쪽에서 이를 보필하며, 태미는 남쪽의 궁원으로서 곁에서 사방의 끝을 비추어 질서를 유지한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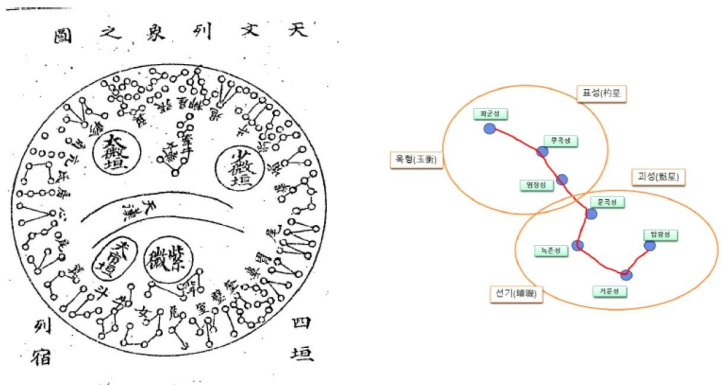
<그림 42> 자미원 지형도 (작도: 필자)

전통 천문관에서는 북두칠성이 북극을 중심으로 일주하며 시간과 방위 및 천상의 질서를 주재하는 별자리로 인식되었다. 이때 북두가 뭇별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중력 작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과 북두를 천상 질서의 중심으로 이해한 전통적 우주론의 상징적 언어이다.44) 이러한 전통 천문관은 두승산에 부여된 천문적 표상을

43) 『地理正宗』 卷1 (新竹: 竹林書局, 2001), p.1, "紫微天極, 太乙之御. 君臨四正, 南面而治. 天市東宮, 少微西掖, 太微南垣, 旁照四極."

44) 북두칠성이 북극성 부근을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실제로 공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 자전에 따른 겉보기 일주운동이다.

해석하는 문화적 배경이 된다. 이하에서는 두승산의 산형과 지명, 선인포전형 전승 및 강일순의 행적 기록을 차례로 검토한다. 이러한 전통 천문관에서 북두칠성과 28수(宿)가 차지하는 상징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천문열상지도(天文列象之圖)」와 북두칠성도(北斗七星圖)를 다음에 제시한다.



<그림 43> 천문열상지도[45]와 북두칠성도 (작도: 저자)

2) 천기 표상과 두승산의 산세

전통 풍수 담론에서는 천상(天象)과 지형(地形)이 상호 대응하며 하나의 질서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이해한다. 두성(斗星)의 괴성(魁星) 일대에 해당하는 두승산은 오행의 산형으로 볼 때, 문필봉으로 상징되는 목형(木形)의 산형을 이루고 있다. 땅은 덕(德)을 위에 싣고 하늘은 빛을 내려 임하고, 음은 양이 조(朝)하듯 알현하는 것을 사용하고, 양은 음이 응(應)하는 것을 취하는 그것이 지리의 이치임을 고려할 때, 풍수의 물형으로 두승산은 이 지역에서 이전에는 귀인봉(貴人峰)으로도 불리어졌다.

45) 徐善繼·徐善述, 앞의 책, p.428.



<그림 44> 만수저수지와 어울린 '선인포전형'의 두승산 전경 (드론 사진: 여주본부도장)

두승산은 풍수적으로 오성(五星) 산형의 변체(變體)인 구성(九星)의 산형을 이루며, 천기와 지기의 결합을 상징하는 산으로 해석된다. 시루산과의 관계 역시 지역 풍수 담론 속에서 형성된 상징적 연계로 이해된다. 풍수적으로 바라보는 두승산의 형국은 선인(仙人)이 융단으로 된 모전(毛氈)을 깔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선인포전형(仙人鋪氈形)의 모습이다. 두승산과 관련하여 『전경』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고부 지방의 유생들이 을미(乙未)년 봄에 세상의 평정을 축하하는 뜻으로 두승산(斗升山)에서 시회(詩會)를 열었을 때 상제께서 이에 참여하시니라. 이때 한 노인이 상제를 조용한 곳으로 청하여 모셔가더니 작은 책 한 권을 전하거늘 그 책을 통독하셨도다.[46]

> "고부 돈으로 약방을 수리한 것은 선인포전(仙人布氈)의 기운을 쓴 것이니라" 하셨도다.[47]

이처럼 증산 강일순 성사의 천지공사 과정에서도 두승산은 매우 중요한 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승산은 전북 정읍시 고부면 덕천면 소성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북쪽으로는 천태산이 호종하고 동쪽으로는 동죽산 등이 공간적 조화를 이루며 지괴(地塊)를 형성하고 있는 호남

46) 『전경』, 행록 1장 24절.
47) 『전경』, 공사 3장 3절.

의 삼신산(三神山) 중 영주산(瀛洲山)으로 불리는 천문과 지리가 융합된 영험한 산이라 여겨진다. 이 지역의 지리를 윤택하게 하고 생기 머금은 지기(地氣)를 보호해 주는 정교천, 정읍천 등을 환포하면서 흘러 동진강으로 크고 작은 수룡(水龍)들이 이 일대로부터 유연하게 흘러내리며 지기를 보호하며 객망리 증산 강일순 성사 탄강지 일대로 이어져 내린다. 풍수의 고전인 『청낭경(靑囊經)』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경에 이르길 하늘에 오성이 있고, 땅에 오행이 있으며, 하늘에는 성수(星宿)를 나누어주고 땅은 산천을 늘어놓는다. 기는 땅에 다니고, 형은 하늘에서 흩어진다. 형으로 인하여 기를 살피고, 그로써 사람의 기강을 세운다.[48]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전통 풍수관은 하늘의 성수와 지상의 산천을 서로 대응하는 질서로 이해한다. 천문에서의 오성(五星)은 목성(木星), 화성(火星), 토성(土星), 금성(金星), 수성(水星)을 이르는 말로 여기에 해와 달을 포함하면 칠정(七政)이 된다. 지역 풍수 담론에서 두승산은 오성(五星)·칠정(七政)의 천문 표상과 결부되어 해석되며, 그 산형은 지리적 형세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된다. 선인포전형(仙人鋪氈形)의 형국을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5> 선인포전형의 두승산[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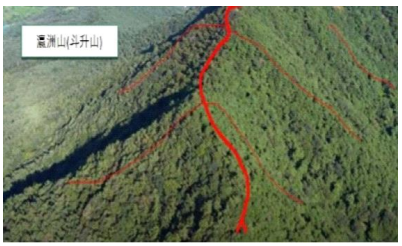


<그림 46> 두승산의 귀인봉 (사진: 필자)

48) 『地理正宗』 卷1, p.1, "經曰, 天有五星. 地有五行, 天分星宿, 地列山川. 氣行於地, 形麗於天, 因形察氣."

49) 《유튜브》, 「호남의 삼신산, 두승산(영주산) / 전경지명소개 /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https://www.youtube.com/watch?v=2hEZDmMIY6M&t=362s, 2022. 12. 7. 검색).

두승산은 용맥의 완만한 굴곡을 따라 형성된 주 능선을 중심으로 호남평야가 사방으로 전개되며, 남쪽의 입암산과 방등산 산줄기는 고저의 리듬 속에 유연한 기세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주 능선을 축으로 한 일정한 각도의 행도 변화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두승산의 산세를 사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7> 두승산의 능선 변화[50]



<그림 48> 선인의 모습을 한 두승산 전경 (사진: 필자)

두승산의 말봉에는 망선대[51]와 수두목승(水斗木升)[52]의 음각 글씨와 두(斗) 자와 승(升)의 형상을 새겨놓은 바위가 있다. 필자가 고찰한 바에 따르면, 두승산 주변에는 선망(仙望), 은선(隱仙) 등 '선(仙)' 자를 포함한 지명이 비교적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지명은 신선사상과 이상향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반영하는 문화적 흔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두승산 일대가 예로부터 길지(吉地) 또는 성현이 출현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50) 《유튜브》, 「호남의 삼신산, 두승산(영주산) / 전경지명소개 /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https://www.youtube.com/watch?v=2hEZDmMIY6M&t=362s, 2022. 12. 7. 검색).

51) 오체(五體)에 능한 서예가이자 금석학자(金石學者)로 동초(東樵) 김석곤(金晳坤, 1874~1948)이 새겼다는 망선대는 신선을 기다린다는 뜻.

52) 곡식을 재는 말과 되의 형상으로 즉, 물과 같은 액체는 말(斗)과 같은 큰 단위로 측량하고 곡식은 되(升)로 측량한다는 뜻.



<그림 49> 수두목승 (사진: 필자)



<그림 50> 두(斗)·승(升)과 관련된 바위 (사진: 필자)

방장산에서 분기한 산줄기는 호남평야를 횡단하며 두승지맥을 발달시키고, 동북 방향으로 연속적인 산세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맥은 정읍천과 고부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동시에 비룡산, 국사봉, 태봉을 경유하여 두승산에 이른다. 나아가 용맥은 망제봉과 시루산으로 연결되며 일련의 행도(行度)를 완결한다. 이러한 지형적 전개 과정은 다음의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방장산에서 두승산, 망제봉, 시루산까지 이어지는 지맥선 (작도: 필자)

두승산 능선에서 분기한 지맥의 행도 변화를 살펴보면, 내장산, 입암산, 방장산, 국사봉, 두승산은 각각 화성(火星)·토성(土星)·금성(金星)·수성(水星)·목성(木星)에 대응하여 오성연주격(五星連珠格)의 산세를 형성한다. 지역 풍수 해석에서는 이러한 산봉의 연속적 배치를 오행 상생의 구조인 오성연주격으로 분류하고, 이를 두승산 일대에 지기가 수렴되는 형국으로 설명한다. 이는 두승산 일대가 호남의 삼신산으로 인식되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3) 시루산·객망리의 풍수적 구성과 종교적 장소성

정읍과 두승지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읍천, 고부천, 동진강 유역은 산지(山地)와 수계(水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산수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신인조화의 공간으로 해석되는 시루산 일대의 형성과 더불어, 증산 강일순 성사 탄강지의 입지적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산 강일순 성사 탄강지가 있는 시루산 일대는 두승산의 한 줄기가 동죽산, 망제봉, 매봉을 거쳐 좌보산의 산형으로 융기된 인걸지령의 터를 이룬 신령한 산체(山體)이다. 시루산을 중심으로 한 객망리 일대는 모두가 증산 강일순 성사의 탄강지와 관련된 풍수적 지명을 담고 있으며, 호남의 삼신산을 중심으로 시루산을 일으킨 내맥(來脈) 중에서 방장산을 중심으로 증조산(曾祖山)에 버금가는 두승산은 시루산과 유기적인 관계로 탄강지의 상징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52> 증산 강일순 성사 탄강지와 시루산 일대 (사진: 필자)

방장산에서 시루산까지의 산줄기 변화와 반암마을 두락암에 부여된 북두 표상은 객망리의 천문·지리적 장소성이 구성되는 배경 자료로 활용된다. 두승산·망제봉·동죽산·시루산으로 이어지는 산세의 높낮이와 굴곡은 지역 풍수 담론에서 지맥의 행도(行度)와 내룡(來龍)의 변화로 해석된다. 또한 시루산 주변의 지명과 강일순 탄생 전승은 객

망리의 종교적 장소성을 구성하는 자료로 제시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지역 풍수 담론은 두락암을 북두 표상의 출발점으로, 두승산을 상징적 매개 지점으로, 시루산·객망리를 종교적 의미의 수렴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천기와 지맥은 물리적 에너지의 이동이나 단일 산줄기의 연속성을 지시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지형·지명·풍수 전승과 강일순 탄생의 기억을 하나의 공간 서사로 조직하는 전통적 해석 언어이다. 이러한 공간 서사에서 시루산·객망리 일대는 천문적 표상과 지리적 형세, 종교적 기억이 한곳으로 모여 의미를 형성하는 융취명당(融聚明堂)[53]으로 해석된다. 융취명당은 천기가 물리적으로 응결한 지점을 뜻하지 않으며, 산세와 수세, 천문 표상, 지명과 지역 전승, 강일순 탄생의 종교적 기억이 중첩되어 상징적 중심성을 획득한 장소를 가리킨다. 이를 통하여 객망리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해원상생의 종교사상이 시작된 장소로 의미화되었으며, 대순 신앙의 종교적 중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Ⅶ. 맺음말

본 논문은 고창 반암마을 두락암 일대와 강일순의 탄생지인 객망리·시루산 권역을 대상으로, 두 지역이 천문·풍수 표상과 종교적 기억을 통해 상징적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북두칠성의 표상과 각 지역의 지형·지세를 검토하고, 천문·지리·인간의 해석 행위가 결합하여 종교문화적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

53) 풍수적 국세를 이룬 명당 앞 일대가 낮게 파여 있거나 마치 그릇의 가장 밑바닥을 연상하게 하는 지리적 형세로 낮은 곳으로 하천의 흐름이 모여들어 융취(融聚)하는 연못의 형태.

연구 결과, 지역 풍수 담론은 반암 권역의 두락암을 표성(杓星) 표상의 출발점으로, 두승산을 괴성(魁星)의 상징적 매개 지점으로, 시루산·객망리를 강일순 탄생의 종교적 기억이 집중되는 성심(星心)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간 배열은 북두칠성의 전통적 상징, 각 권역의 산세와 수세, 지명, 풍수 전승 및 종교적 기억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반암마을 두락암과 시루산·객망리를 천문 표상과 풍수 해석이 결합하는 융취명당(融聚明堂)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융취명당은 풍수 담론에서 천기와 지기가 융합된다고 해석되는 공간이 종교문화적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분석은 천문·풍수 표상이 자연 지형의 객관적 일치를 입증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서로 떨어진 장소들을 하나의 의미망 안에서 관계 짓는 문화적 언어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지형과 지명, 풍수 전승 및 종교적 기억의 결합은 강일순 탄생지가 대순 신앙에서 종교적 중심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해석 틀을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의 천문관·풍수관·종교문화가 결합된 해석 체계에 근거한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산 강일순 성사의 탄강지를 둘러싼 천문과 풍수의 상응성을 새롭게 조명함과 동시에, 천문·지리·종교문화가 융합되는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周易』

『地理正宗』 卷1, 新竹: 竹林書局, 2001.

『晉書』

고남식, 「강증산의 강세지(降世地)인 정읍시(井邑市)에 나타난 구천상제(九天上帝) 신앙과 그 양상: 전북 정읍시 망제봉·객망리·시루산의 암시 및 정읍 관련 천지공사와 관련하여」, 『대순사상논총』 40, 2022. https://doi.org/10.25050/jdaos.2022.40.0.187

김상휘, 『풍수담론 1: 모악산 평설』, 서울: 계간문예, 2015.

_____, 『우리마을 이야기: 천마시풍 마명마을』, 고창: 고창군아산마명마을회, 2022.

박봉주, 『한국풍수이론의 정립』, 서울: 관음출판사, 2002.

신영대, 「상제 강세지 객망리 일대의 풍수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지맥의 연결과정을 통한 형기론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6, 2023. https://doi.org/10.25050/jdaos.2023.46.0.69

양균송, 『감룡경·의룡경』, 김두규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2009.

유청림 편저, 『옥룡자유세비록』, 대전: 종려나무, 2010.

이순지, 『천문류초(天文類抄)』, 김수길·윤상철 옮김, 서울: 대유학당, 2013.

전북소설가협회, 「풍수명인 김상휘 박사의 '정감록 십승지를 걷다': 고창편」, 《소설전북》 29, 전주: 전북소설가협회, 2021.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Ⅰ):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https://doi.org/10.25050/jdaos.2013.21.0.99

차선근·박용철, 「기문둔갑, 그리고 강증산의 종교적 세계」, 『종교연구』 77-3, 2017. https://doi.org/10.21457/kars.77.3.201712.193

채성우, 『명산론』, 김두규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2002.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서울: 민음사, 2001.

徐善繼・徐善述 合著,『地理人子須知』,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0.

남궁경종, 「고창 아산면 반암마을, 정감록 십승지 중 한곳으로 밝혀져」, 《전북도민일보》 2012. 8. 9.

전북중앙, 「차별과 탄압으로부터 견뎌낸 서북인 '생존의 터'」, 《전북중앙》 2025. 3. 4.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

《나무위키》 https://namu.wiki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http://www.daesoon.or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

■ Abstract

A Study of Celestial-Terrestrial Correspondence Discourse in the Duragam Area of Banam Village and the Gaekmang-ri Area: Focusing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Big Dipper Symbolism

Shin Young-dae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Jeju Touris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Duragam in the Banam region of Gochang and the Gaekmang-ri-Sirusan area, the birthplace of Jeungsan Kang Il-sun, are configured as a symbolic spatial network through Big Dipper symbolism, Fengshui landform types, place names, local traditions, and religious memory. The central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when Duragam and Gaekmang-ri are interpreted as places where celestial and terrestrial orders correspond, Gaekmang-ri may be understood as a space that anticipates the emergence of Kang Il-sun as a religious figure.

The study combines fieldwork, map and satellite-image analysis, and an examination of traditional astronomical and Fengshui texts and Daesoon Jinrihoe sources. Drawing on form-based Fengshui theory (hyeonggi-ron) and landform typology (mulhyeong-ron), it analyzes the Fengshui interpretations assigned to the mountain forms, watercourses, and ridge systems of each region, as well as

the ways in which place names, local traditions, and religious memory interact with natural topography. The findings indicate that local forms of Fengshui discourse in Gochang and Jeongeup construct a symbolic interpretive structure in which Duragam in the Banam region corresponds to the dipper handle (pyoseong, 杓星), Mount Duseung to the dipper bowl (goeseong, 魁星), and the Sirusan–Gaekmang–ri area to the symbolic stellar center (seongsim, 星心). Seongsim is an analytical concept formulated in this study rather than a technical term derived from traditional astronomy. It refers to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Big Dipper symbolism attributed to Duragam and Mount Duseung converges upon the religious place–making of Kang Il–sun's birthplace. This spatial linkage is best understood not as the actual transmission of celestial energy or the physical continuity of a single mountain ridge, but as a humanistic spatial narrative form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topography, place names, Fengshui traditions, and religious memory.

Keywords: Kang Il-sun, Jeungsan, Gaekmang-ri, Duragam, Banam Region, Celestial-Terrestrial Correspondence, Fengshui Discourse

논문투고일 : 2026.04.25. 심사완료일 : 2026.09.01. 게재확정일 : 2026.09.28.